

“중대재해 근절은 건설 현장의 미래입니다”

삼성건설 군포산본 주공 APT 재건축 현장

경기도 군포시 산본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레미안 아파트단지. 이곳은 기존의 주공아파트를 삼성에서 29개동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로 재건축하고 있는 현장이다. 총 2,644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면서 산본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아울러 이곳 현장은 대규모 공사, 그리고 건설현장이라는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6일 무재해 100만 시간을 달성할 만큼, 안전에 관해서는 어느 곳보다 뛰어난 곳이기도 하다. 이곳 현장이 이렇게 안전현장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이곳만의 특별한 안전관리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취재 | 임동희 기자





현장 소장의 마인드는 '안전 지상주의'

군포산본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은 현장소장의 마인드부터 남다르다. '중대재해를 근절하자'는 것이 삼성건설의 안전방침이자 비전이다.

조평구 현장소장 역시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생각이 깊다. 현장소장으로 일하기 전 본사에서 안전업무 5년 정도, 현장 안전업무까지는 8년 이상 경험해봤을 정도로 안전에 관해서는 전문가 못 지않은 식견을 갖추고 있다. 조 소장의 "안전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안전은 더 더욱 챙겨야 하며 무엇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에서 조 소장의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쉽게 느껴볼 수 있다.

건설현장에 적용된 시스템 안전

이곳 현장은 보통의 건설현장과는 다르게 체계적인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삼성의 OHSMS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스템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토대로 사전점검,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등의 계획이 세워지고, 모든 직원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자랑할 것이 위험성평가 모델이다. 논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험성평가 가이드는 본사와 연계되어 위험작업을 사전에 도출해낸다.

매일 협력사가 현장을 점검하고 관찰하고 평가하면 그 결과를 시공팀과 만나 대책을 세운다.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주간 단위로 다시 논의되며, 그것이 다시금 4번의 사이클을 거쳐 월간 단위의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때 현장소장과 협의회, 시공팀장들의 참여는 필수이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현장의 위험요소는 작업 전에 미리 제거되고, 또 직원들에게도 사전에 인지된다.

감성 안전부터 커뮤니케이션 안전까지

이곳은 인간 중심, 근로자 존중의 안전문화를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감성안전이 이곳 안전문화의 바탕이 된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놓으면서 근로자 자신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끔 한다. 여기에 가족의 행복, 자신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면서 안전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문화도 조성한다.

두 번째로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 안전이다. 안전과 관련한 시각적인 요소를 계층별, 공정별, 공구별로 정해 관리된다. 예를 들어 하늘색 안전모와 파란색 안전모는 협력사, 하얀색 안전모에 형광색 안전벨트는 공사시공파트, 하얀색 안전모에 파란색 안전벨트는 안전관리자들을 의미한다. 또한 신규근로자들은 노란조끼로 구별한다. 디자인 안전의 취지는 멀리서 현장을 보더라도 근로자들의 업무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데 있다. 시설에 있어서도 색상으로 위험지역, 안전지역, 작업 중인 지역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그에 맞는 행동이 무의식 속에 표출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안전이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생각이다.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대화체널만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위로 올라오지 않을 수 있고, 또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전달해주는 프로세스 및 과정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대화창구를 항상 열어놓는 것은 물론, 안전토론회, 재해예방토론회 등을 통해 작업별로 문제점을 서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

자재, 시설물 정리도 안전하게

현장을 들어섰을 때 외형적으로도 상당히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저분한 수평낙하물 방지망은 일단 1개소만 있었을 뿐 모두가 수직 낙하물 방지망으로 가지런히 정돈된 이유였나보다. 현장에 자재 또한 있을 곳에 가지런히 정돈된 것이 이곳의 안전수준을 말해준다. 특히 낙하물 방지망은 시각적 효과보다 건설현장의 골치거리인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설치·해체시 추락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수평낙하물 방지망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다.

5월 중순경에는 200만 시간 무재해 달성

이곳 현장은 200만 시간 무재해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5월 중순경이면 그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2010년 9월 준공 때에도 무재해 현장으로 인정을 받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건설안전의 새로운 기틀이 되길 기대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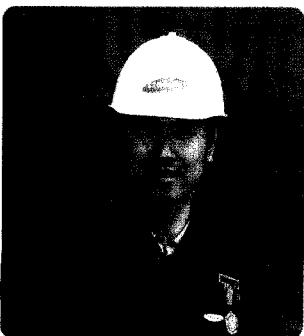


조평구 현장 소장

무재해 준공 그 날까지 안전하게

교육 때 “보상금 4억을 준다고 하면 죽을 분 있습니까” 라고 가끔 물어봅니다. 그러면 죽겠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1년에 매년 2,900명씩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이 없거나 예전에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현장의 수칙을 등한시 하고, 또 ‘뻔찮겠지’ 또는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는 안이한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 모두 떠나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가면 갈수록 사소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느낌이 불안하면 절대 작업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그때 즉시 보고 해주시고, 항상 사전안전 조치후 작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재해로 준공 그순간까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신우석 안전팀장

안전은 가치있는 일

개인적으로는 ‘재해자 없는 꿈의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도, 회사의 안전시스템과 직원들의 마인드로 인해 결국 저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안전도 프로세스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참여가 아니라 업무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문화가 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명제 아래,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준공 때까지 무재해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을 생각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매우 좋은 일이고 가치있는 일입니다.